

인도차이나 3 국 및 미얀마

인도차이나 3국

6월 30일 • 후지重工業, 베트남에서 4륜 구동차 조립생산

日本の 후지(富士) 重工業은 베트남의 대형 자동차 메이커인 베트남 모터즈(하노이시)에 위탁하여 4륜 구동차의 현지조립(KD) 생산을 개시함. 생산규모는 첫해에 120대이며, 차종은 '레가시'의 스테이션 왜건 타입(배기량 2000cc)임.(日經)

7월 3일 • 日本 고마쯔, 캄보디아에서 건설기계 판매키로

日本の 고마쯔는 동남아시아에서의 건설기계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판매대리점을 신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고건설기계 등의 판매 및 보강부품의 공급과 수리서비스 등을 전개키로 함.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등에서 고마쯔製 건설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인 유나이티드 모터 워크스(쿠알라룸푸르)가 연내에 판매거점수를 확대하고 기계수량 20톤급의 중형 유압 쇼벨인 'PC200'의 중고차를 중심으로 확대 판매할 예정임.(日經)

7월 5일 • 베트남, 外資企業의 建資材免稅 계속키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24일자 총리 지시사항으로 舊外國人投資法에 의거해 투자허가를 취득한 외자기업에 의한 건축용 자재의 면세수입을 7월 1일자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철회함. 이에 따라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에 한해 계속 건자재의 면세수입이 허용됨.(일간무역)

7월 6일 • 캄보디아, 內戰 勃發

캄보디아의 훈센 제2총리가 라나리드 제1총리가 프랑스로 출발한 직후 FUNCINPEC(民族統一戰線)계의 군사시설과 라나리드측 군고위장성 자택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Reuter, 日經).

7월 7일 • 베트남, 外國人投資 감소세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베트남에 대한 外國人投資는 1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0%의 감소세를 나타냄. 반면, 건수로는 146건을 기록, 전년동기의 150건에 비해 미미한 감소세를 나타냄. 국별로는 日本이 3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泰國, 獨逸, 韓國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日經)

7월 8일 • 캄보디아 內戰, 훈센측의 프놈펜 장악

지난 5일 발생한 캄보디아 내전에서 훈센 제2총리측이 수도 프놈펜을 장악한 가운데, 프놈펜市의 통행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힘. 반면, 라나리드측 병력은 바탐방 및 반테이 메안체이주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uter, 産經)

7월 11일 • ASEAN, 캄보디아의 가입 보류키로

ASEAN은 캄보디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내전과 관련, 特別 外務長官會談을 개

최하고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힘. ASEAN의 이같은 결정은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동남아의 지역불안과 정적들에 대한 훈센측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롯됨. 한편 훈센 총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힘. (Reuter)

7월 16일 • 후지쯔, 베트남의 프린트 기관 공장에 환경시설 건설

日本の 후지쯔는 베트남에서 건설중인 고밀도 프린트 기관의 신공장에 排水處理와 淨水리사이클 시설을 건설키로 함. 투자액은 약 1,200만달러로 총투자액의 10%에 해당되며, 排水의 처리능력은 1일 10톤임. 베트남 신공장은 총투자액 1억 2천만달러로 日本의 노트북 PC공장용 등으로 프린트 기관을 공급하고 있음.(日經)

• 中國과 베트남, 영토분쟁 평화해결 합의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과 도 무오이 베트남 共產黨 書記長은 북경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간 관계강화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함.(中央)

7월 25일 • ASEAN, 캄보디아사태 해결 지원키로

ASEAN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ASEAN의 중재를 받아들일것다고 밝힘에 따라 캄보디아의 사태해결 노력을 재개키로 함. 이에 따라 Ung Huot 캄보디아 外務長官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ASEAN 외무장관회담에 옵저버로써 참여하게 됨.(F. T., Bangkok Post)

7월 29일 • 베트남, 國會議員 選舉에서 비공산당원 대거 당선

지난 20일 실시된 베트남 總選結果에 의하면, 전체 450의석 가운데 공산당계가 85%인 384석을 차지한 반면, 비공산당계는 33석에서 66석으로 늘어남. 또한 공산당조직이나 군의 추천을 받지 않은 독립계열 후보도 3인이 당선되어 경제자유화에 따른 정치민주화의 진전을 반영함.(Reuter, 中央)

미 안 마

7월 3일 • 日本 고마쯔社, 미얀마에서 건설기계 판매키로

日本の 고마쯔社는 동남아시아에서의 건설기계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판매대리점을 신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고건설기계 등의 판매와 보강부품의 공급 및 수리서비스 등을 전개키로 함. 동남아시아의 건설기계 시장은 신차가 연간 1만 수천 대인 데 반해 중고차는 연간 2만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고차 시장의 신장률은 연간 약 40%에 달하고 있음. 미얀마에서 고마쯔社의 건설기계 판매대리점이 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트랙터(자카르타)의 현지법인임. 同

대리점이 금년 가을경 미얀마에 현지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고차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기계의 판매와 보수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임.(日經)

7월 4일 • 保險市場 開放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독점사업으로 수행하여 오던 미얀마내 보험사업을 민간 및 외국인 보험사에 개방하기로 재무부 고시를 통해 발표함.(KOTRA)

• EU, 미얀마의 ASEM참가 거부키로

EU는 룩셈부르크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달 ASEAN에 가입하는 미얀마를 내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ASEM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Reuter)

7월 10일 • 美 Santa Cruz市, 미얀마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실시

美國 캘리포니아의 Santa Cruz市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의 Santa Cruz에 대한 투자나 계약체결을 금지키로 함.(Reuter)

7월 11일 • 日本, 미얀마 제재법과 관련하여 美國을 WTO에 제소 검토

日本政府는 美 매사추세츠州的 ‘미얀마 제재법’이 世界貿易機構(WTO)의 政府調達協定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美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방향에서 검토에 들어감. 日本은 매사추세츠州와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日本企業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이달 중 제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日經)

7월 16일 • 미쓰비시自動車, 미얀마에 판매거점 설치

日本의 미쓰비시 自動車工業은 미얀마에 신차 판매거점을 설립, 日本으로부터 수출한 승용차와 상용차의 판매를 개시함. 판매거점은 미쓰비시自動車の 전문 거점으로서 닛쇼이와이가 현지자본 등과 합작으로 설립함.(日經)

7월 23일 • 라오스와 함께 ASEAN 가입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外務長官會議에서 기존 7개국 외무장관이 미얀마와 라오스의 가입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미얀마와 라오스는 ASEAN의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 이와 함께 미얀마는 “AFTA 창설을 위한 CEPT 계획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CEPT)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AFTA))”을 비롯한 11개 주요 ASEAN 협약에 서명함.(Reuter, AWSJ, 日經)

7월 31일 • 美國企業, 經濟制裁措置로 연간 150~200억달러의 수출 감소

“미얀마 등 인권억압국가에 대한 美國의 經濟制裁措置로 美國 企業은 연간 150~200억달러 상당의 수출을 상실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國際經濟研究所(버그스텐 소장)가 최근 조사결과를 발표함. 美國에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문제와 관련된 경제제재에 착수하고 있어 그 비용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짐.(日經)

• ASEAN, 對미얀마 직접투자 급증

미얀마 投資委員會에 의하면, 유럽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ASEAN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금년 1~6월(상반기)의 외국인 직접투자 인가액은 8억 8,4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이는 미얀마의 ASEAN 가입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주변국이 경제면에서 미얀마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부상하고 있음. 상반기에 두드러졌던 특징중의 하나는 말레이시아의 다타란 이씨부미社에 의한 海底油田・天然가스田 개발임. 종래 이 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투자해 왔지만 처음으로 ASEAN 기업이 진출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국별 투자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5위를 기록함.(日經)

8월 1일 • 美 뉴몬트社, 미얀마에서 철수기로

美國의 대형 자원개발업체인 뉴몬트 미네랄 익스프로레이션은 미얀마 북부에서의 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함. 지난 4월 美 政府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한 이래 美 기업의 철수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얀마의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미국내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뉴몬트社는 96년 7월 1억 5,400만달러를 투입하여 금광산을 개발하기로 미얀마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日經)